

블속에 뛰어드는 《통와대》의 부나비들

공화국의 군사적강세에 기절초풍한 윤석열역적패당이 분별을 잃고 외세의존과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더욱 미쳐날뛰고있다.

얼마전에 있는 제3차 남조선미국위급합작역적전략회의체회의를 전후로 벌인 윤석열역적패당의 추태만 보아도 그러하다.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부호전파들과 외교부장들은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정보공유, 공동계획, 위기협의, 미전략자산전개, 합동군사연습, 전략적소통 등 합작역적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제3차 남조선미국위급합작역적전략회의체회의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또한 회의직후에는 저저마다 나서서 그 무슨 조선훈교정세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실감한 우려》와 《북에 대한 압도적, 결정적대응》을 운운하면서 미국이 재래식, 첨단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총동원할것을 약속하였다. 북핵에 대한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합의한것은 북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경

고성의미》를 가진다고 떠벌이고있다.

다 췌어진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어떻게 하나 추악한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가 소름과 어리석은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이번 회의에 대한 내외언론들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미국이 《철통갈고 혼들릴 없는 확장억제력제공》 약속을 제 확인하였고 북의 어떠한 핵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하고있지만 실용성이 없다. 미국이 공화국의 핵타격으로 본토와 해외의 기지들이 초도화될 위험과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조선에 지지를 의사는 없을것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강도높은 확장억제력을 제공할수 있다고 보는것은 《희망적사고》이며 미국에 《승고한 희생》을 요구하는것도 어리석은것이라는것이 내외언론들과 전문가들의 일치한 평이다.

저들의 리익에 저촉되고 운명이 위태로워지면 《동맹》이고 뭐고 교묘한 휴지

천 미국이 절대적힘을 지닌 초강대국, 핵보유국인 공화국과 맞서 비참한 말로로 각오하면서까지 한갓 식민지하수인, 현대판노예에 불과한 윤석열역적패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인간오물들을 지켜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망상의 극치이다.

미국과의 비투한 본색도 모르고 허수인들의 불안과 공포를 누갓하기 위해 상전이 늘어놓은 빈말에 불과한 《약속》을 믿고 동족을 거냥한 전쟁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이야말로 가소롭고



본시기자 김정혁

천일매국도의 굴욕적행위

오는 11월 일본해상 《자위대》 창설 70년을 계기로 국제관습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패전국의 국주주의야망의 산물인 《자위대》가 그 무슨 창설기념식을 가진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경악을 자아내는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이 《자위대》가 필연이게 될 이번 관습식에 참가하는것이 문제될게 없다고 하면서 관습식참가를 기정사실화하고있는것이다.

피로 얼룩진 일제전범의 상징인 《육위대》도 문제없다는것이야말로 천일매국노다는 주장으로서 민족의 공분을 자아내는 굴욕적추태가 아닐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육위대》를 두고 그 무슨 《군기》라느니, 국제적인 다자련합훈련에서도 리용되었다느니, 해상 《자위대》기발을 리유로 참가하지 않는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나 하며 일본관습식에 한사코 참가하려 하고있는것은 민족적자존심과 얼이라고는 꼬물꼬물도 없는 천일매국도의 사대매국적정태이다.

세월은 흐르고 산천은 변하여도 과거 일제가 저지른 그 모든 야만적행위는 천일공노할 만인류적범죄로서 대륙침략의 상징이었던 《육위대》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역적패당의 일본관습식참가움직임은 《한일관계개선》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의 굴욕적인 대일정책추진의 직접적발로이다.

최근에만도 일본정객들이 8.15를 맞으며 야스쿠니신사에 배를 지어 물러가 군국주의망령들을 《위로》하고 재침침공을 고취해낸것은 세인이 다 아는 일이다.

유독 역적패당만이 이 망동에 대해

《멈출수 없는 관습》이라고 두둔해나선데 이어 《8.15경축사》에서는 일본을 그 무슨 《이웃》, 《미세한협력관계》라고 치켜세우며 《관계개선》의 추파를 던졌다.

은 세계가 비난하며 반대배격하고있는 핵오염수방출문제에 대해서도 피해를 제일먼저, 제일 극심하게 받게 될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일연반구의 항변은 커녕 오히려 음모양모로 지지해나서고있는 판이다.

도를 넘어서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천일공노행위는 명백히 섬나라폭발이들의 조선반도재침략야망을 부추기고 침략의 발판을 놓아주는 용납 못할 만민족적범죄다. 기를어저가는 과멸의 운명을 사대매국으로 부지해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2018년 일본은 《육위대》문제도 남조선에서 진행된 관습식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오늘 윤석열역적정단은 일본의 《육위대》 밑으로 제발로 머러숙고 들어가겠다고 하고있으니 차마 눈뜨고 못볼 일이다.

윤석열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는것은 결국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제침과 지배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뜻이 명백하다. 민심이 악화될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 정서에 반하여 일본의 심기만 살피는 윤석열때문에 일본것들이 더욱 뻔뻔스럽게 오만해지고있는것이라고 강력히 성토단죄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윤석열역적도와 그 패당이 민족의 천년속죄에서 사회와 배상을 받아내기는 커녕 비굴하게 계속 굴신시키다가는 헤어나올수 없는 절망의 심야속에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될것이다.

김태준

더 큰 화를 초래하는 우둔한 자멸행위

윤석열역적패당이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싸드》기지운영의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달려붙고있다.

역적패당은 남조선강점 미군이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물자와 인원을 반입할수 있도록 지상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주마다 2~3차씩 수송기와 직송기로 물자와 인원을 《싸드》기지에 들여보내던 수송회수를 지난 6월부터 5차로 늘였다. 지난 9월 4일에는 《싸드》기지에 주 7차이상 물자를 들여 보냈다고 하면서 기지내 미군의 병설공사에 필요한 건설장비들을 실은 10여대의 수송대를 새벽 1시 30분경에 도착고양이처럼 투로를 통해 들어밀었다. 기지정상운영에 필수적인 기지현장조사도 1년 이상 결려야 하지만 지난

8월 19일 1차일반화평경향장기협의회의후 심각한 현장조사물 미군의 요구대로 다음해 상반기안에 끝내려고 획책하고있다.

지어 윤석열역적패당은 남조선강점 미군에 《싸드》부지를 점거마치는 문서에서 서명까지 하였다.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를 더욱 험악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군사적행동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한것은 북침전쟁으로 전조선을 병탄하며 나아가서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 침략적인 인디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흉악한 기도에 따른것이다.

박근혜등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미국의 이러한 불순한 기도에 추종하여 《싸드》를 끌어들이는데 발벗고

나섰다.

미국과 보수패당에 의하여 남조선에 《싸드》가 배비됨으로써 남조선은 북침전쟁과 세계제패전략실행을 위한 미국의 전초기지, 전쟁화약으로 더욱 철저히 전락되고 대국들의 고래싸움에 등등러지는 가련한 새우신세로, 유사시 선제타격 및 북보타격의 제1과녁으로 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한사코 《싸드》기지를 운영상화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미국상선의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남조선인민들이 엄청난 인명 및 환경피해와 막대한 경제적부담을 떠쓰게 해서는 물론 임의의 시각에 참혹한 재앙을 당할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싸드》를 끌어들이 미국과 남조선위정자들을 준렬히 단죄관한하며 지금까지 《싸드》를 철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공화국은 물론 주변나라

들도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싸드》배비책동의 엄중성과 위험성, 그 후과를 가림하면서 남조선에서 《싸드》를 끌어내갈것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한사코 《싸드》기지를 운영상화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미국상선의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동족대결을 위해서라면 남조선인민들이 엄청난 인명 및 환경피해와 막대한 경제적부담을 떠쓰게 해서는 물론 임의의 시각에 참혹한 재앙을 당할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싸드》를 끌어들이 미국과 남조선위정자들을 준렬히 단죄관한하며 지금까지 《싸드》를 철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공화국은 물론 주변나라

도 14년만에 최악으로 떨어졌다.

물가 또한 영망진창이 되어 사람들의 생존을 심각히 위협하고있다.

그뿐만도 아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보아도 1997년 외환위기이후 가장 높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추값은 72%, 무우는 64.6%, 양파는 53.4%, 돼지고기는 19%, 닭알은 38.7%

《운망진창》

로 경쟁 뛰어들었다 더 말할 무엇하겠는가.

재정형편은 더욱 영망진창이다.

무지몽매한 윤석열역적도의 금리인상정책으로 가정에서의 빚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가계부채는 무려 1조 4 000억US\$라는 천문학수치를 기록하고있으니 남조선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벼터미에 갇혀 허우적대고있다.

윤석열역적도의 집권이후 남조선경제와 민생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훈환율)와 《3저》(저생산, 저소비, 저투자)의 수렁에 깊숙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이 《예로부터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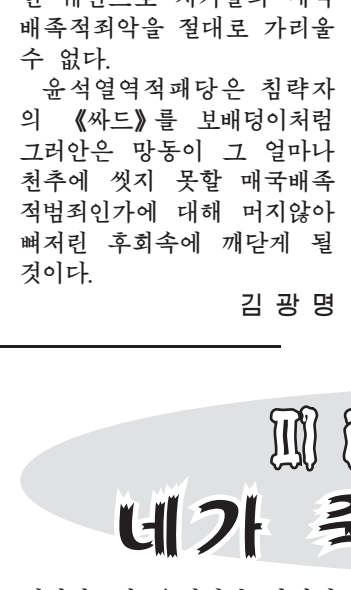
망진창이라는 말이 전해오는데 윤석열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다. 윤석열때문에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영망진창, 《운망진창》이 태버었다. > 개탄하고있었다.

남조선인민들에도 《윤석열이 당선되고 한 일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 자기 사무실과 공공기관을 《일》, 《윤석열집권이후 수백만US\$가 람비되는 취임식과 민관합작에 기꺼워하지 않는다》, 《시작을 보니 끝이 보인다》, 《앞으로의 5년이 정말 지옥같이 여겨진다》.는 탄식과 야유의 글들이 차넘치고있다.

과거에 처한 경제와 갈수록 협착되는 생활고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채 《대통령을 처음 한지라...》,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남볼처럼 외워대고있는 이런 일간이가 《대통령》갑투를 뒤집어썼으니 남조선경제가 영망진창으로 돼버리는것은 천만번 지당한 리치 일 것이다.

윤석열역적도의 집권기간 남조선경제와 민생은 물론 모든것이 《운망진창》될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김원철



얼마전 윤석열역적도가 등지를 틀고있는 통산사무실 근처에 풍자만화가 10여장이나 나뉘어 회한한 구경거리로 되었다고 한다.

마스크를 착용한 윤석열역적도가 콘공포의 앞을 걸어헤치고 알몸뚱이를 드러내채 헤벌쭙 웃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는데 이번것은 몸의 일부를 드러내진 김진희의 낯짝으로 가리운것이 실로 가관이 었다고 한다.

미신과 재물에 환장한 너런네의 치마폭에 파묻혀 그의 해피한 추분과 비행들에 아님보살하는 윤석열의 꼬락서니를 적라라하게 펼쳐보인 만화는 세인의 양천대소를 자아냈다.

사람들은 풍자만화의 《마음껏 락서하세요》라는 문구아래에 《퇴진까지 1초 준다》, 《세계적망신, 경제폭망 윤석열 퇴진하라》, 《왜 태어났니》, 《그냥 내려와》 등의 글을 써넣으면서 역도를 마음껏 조롱하였다.

너무도 엉당한 풍자이

고 조롱이다.

제 대접은 제가 받는다고 역도가 받은 망신은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응당한 대접이다.

《대통령》선거기간 사랑들로부터 《도리도리운》, 《윤도리랑》이라고 조소를 받았는가 하면 합상 다리를 찍 버리고 앉은것으로 하여 《꼭 벌날》으로 불리우다 못해 《아페도리만 보고 누군지 못하기》라는 인터넷 웃웃회의 주인공으로 된것이 바로 윤석열역적도이다.

뿐만아니라 《지평을 열다》를 《지평선을 열다》로, 《반드시》를 《반듯이》로 써놓는가 하면 인 천시에 써놓은 강화도에 대해 《강화도가 인천보다 얼마나 큰가?》라고 물어보아 초보적인 철자에도, 지리상식도 모르는 무식쟁이로 비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갑투를 쓴 후에는 제 잘난듯이 거들먹거리며 무지몽매한 본래, 너런네의 치마폭에 놀아

나는 3대머리, 해피망 축한것만 골라하는 저능아, 송미친일이 체질화된 추물,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 불망중, 동족대결광로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여실히 드러내는 짓거리를 현이 버려야 민사람의 혐오와 환멸의 첫째가는 대상으로 되었다.

오죽했으면 어느한 외국의 시사주간지가 무지 무능의 극치인 윤석열역적도를 초보도 모르는 정치미숙아로 락인하면서 《기본부터 배우라》고 내놓고 야유조소하였겠는가.

이렇게 안팎으로 망신에 망신을 거듭하면서도 도무지 수치를 모르는 역도야말로 인간추물이 분명하다.

예로부터 민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던 병이 없어도 죽는다는 말이 없다.

내외의 조롱과 비난, 단죄와 규탄, 저주와 풍자의 대상으로 된 윤석열역적도의 운명도 결코 달리는 필수 없을것이다.

최은정

피려지는 싸움 -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인터넷에 올리면서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고 한다.

리준석의 변호인단도 리준석의 당대표직취거와 비상대책위원회표적정지를 요청하는 가치분신죄에 대한 범인의 재판이 진행되고있는 속에서도 가가정가가 논의되는것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불복행위를 총동원하여 대응할것이라고 하고있다.

정치해태기인 리준석이

간상배이다.

윤석열패거리들과 리준석패거리들이 제가끔 《도덕》, 《리리》, 《자유》에 대해 떠들며 서로 물고뜯는것은 권력쟁탈을 위한 추악한 개새움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물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힘》내부의 집안싸움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평이다.

도란에 빠진 민생은 안중에 없이 추악한 정치적야욕 실현을 위해 권력싸움만 일삼고있는 《국민의힘》패거리들을 비롯한 정치권인들 장바들에 의해 남조선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날로 더욱 커만 가고있다.

박영일

풍자조소의 대상이 된 김원철 역적도

우수한 우리 말보다 외래어와 일본말까지언어, 잡랑말이 판을 치는 남조선사회에서 간단한 우리 말 단어의 뜻도 잘못 이해한것으로 하여 웃지 못할 희비극이 펼쳐지고있다.

일마침 남조선의 한 언론은 매우 길고 감절하다는 뜻의 《심심하다》를 《지루하다》혹은 《심잡하다》는 뜻으로 리해하여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를 《심심해서 한 사과》로 오해하고 《진정성》이 없다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흘》(3일)을

민족어를 천시하는 사대굴종의 서식지

《사(四)》로, 병역을 역병으로 틀리게 잘못 읽는 일이 벌어지고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영어어휘교재는 열심히 구입해 영어단어의 어원까지 파고들면서도 정작 우리 말의 어휘력을 높이는 데는 소홀히 하고있는 사회의 현실을 개탄하였다.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이 말살되어가는 남조선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이다.

남조선의 언어학자들이 일상생활용어 1 643개를 조사 분석한데 의하면 고유한 우리 말은 불과 5%이고 95%

가 외래어와 잠랑말로 되어있었다고 한다.

건물의 이름만 봐도 《빌딩》, 《모텔》 등 외래어로 불리우는것이 다반사이다.

그러나 하면 우리 말과 외래어가 혼란된 잠랑말과 같은 별의별 리해하기 어려운 피이한 언어들까지 생겨사람들의 언어생활에 마구 침투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한계 일간신문에 표기되는 외래어단어는 평균 800여개이며 외래어와 잠랑말이 50%이상이라고 한다.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다른 신문들에 비해 조선글을 많이 사용한것으로 하여사람들속에서 사회진보도가 높다는 사실은 《언어식민지》, 《언어오물장》으로 불리는 남조선사회의 실태를 더욱 잘 알수 있게 한다.

외국어 특히 영어를 잘해야 《인정》을 받고 외국어가적인 물건이나 소지품을 들어야 《돌보이는》것이 오늘 남조선사회의 서클본 현실이다.

하긴 이른바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는자들부터가 우리 말보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즐겨 쓰기를 좋아하고 외래어